

5·18 40주년 기념식 옛 전남도청서 열린다

보훈처 정부기념식 역사 숨쉬는 제3의 장소 모색...의견 수렴 5·18행사위·오월단체 등 “추모 넘어 문화로 자리 잡아” 환영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올해 5·18 정부기념식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19년만에 ‘국립 5·18민주묘지’를 벗어나 옛 전남도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가보훈처와 5·18기념재단,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정부기념식은 국립묘지가 아닌 민주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제3의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는 5·18 40주년을 비롯해 6·25전쟁 70주년, 4·19 60주년 등 각 호국·민주 사업들이 의미 있는 해를 맞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5·18 정부기념식도 국민 통

합에 기여할 수 있는 개최장소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5월 단체와 광주시민 사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광주의 여론을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5·18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고, 2003년 5·18기념식이 정부 행사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5·18 기념식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벗어난 적은 없었다.

이에 5·18정부기념식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부서는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 (이하 40주년 행사위)와 5월 3단체 (5·18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에 의견을 묻고, 각 단체들의

의견들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40주년 행사위측은 옛 전남도청, 옛 광주교도소, 옛 505보안부대, 옛 국군통합병원 등을 기념식 장소로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옛 전남도청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전남도청은 1980년 오월 당시 마지막까지 계엄군에 항거한 장소라는 상징성에 지리적 요건으로 봐도 방사형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제안에 오월 단체 관계자들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5월 단체 한 관계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자리잡고 있는 옛 전남도청에서 40주년 정부기념식이 열린다면 5·18이 단순 기념식 차원을 넘어 문화로 자리잡아 후대에 계승돼야 한다는 점을 내포할 수 있는 기념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5월 관계자는 5·18이 이제는 광주의 지역과 추모의 상징성을 뛰어넘어 전국화와 미래세대에게 오월정신을 이어줘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춘식 5·18유족회장은 “옛 전남도청에서 정부기념식이 열리는 것은 새로운 5·18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정부기념식 본 행사전에 5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민주묘지의 참배는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도 같은 의견을 밝히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문홍식 5·18구속부상자회장은 “5·18이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획일화된 기념식 장소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주가족 합동세배 27일 오후 광주시 동구 YMCA무진관에서 열린 '민주가족 합동세배'에서 참석자들이 서로 세배를 하며 덕담을 주고 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지검 차장검사 정규영 법무부, 검사 713명 인사

법무부는 “광주지검법정청 차장검사에 정규영(57·사법연수원 28기) 서울동부지검 인권감독관을 발령하는 등 검사 713명에 대한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인천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법무연수원교수·연구위원, 서울고등검찰 검사 등을 역임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장에는 정진용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형사3부장에는 김영기 서울고검 검사, 반부패수사부장에는 김형록 인천지검 형사7부장이 보임됐다.

목포지검 지청장에는 유종완 서울북부지검 중견단 부장, 순천지검 지청장에는 이철희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발령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교육연구정보원 이설...광주교육청 청사 부족 문제 풀리나

광주자연과학고 유휴부지에 인공지능 진로체험센터도 신설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자연과학고 유휴부지에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AI) 진로체험센터를 신설하고, 교육연구정보원도 이설하기로 했다.

교육연구정보원이 이설되면 해당 공간은 부족한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방침

로,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노후화되고 협소한 청사 문제도 동시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500억원 대에 이르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재양성을 위한 진로체험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설립 예정부지는 광주시 북구 오차동 자연과학고 내 유휴부지(면적 약 2만1640㎡)로 잠정 결정됐다. 부지 매입비를 줄여 사업

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연구원과 연계해 대형버스 주차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점이다. 진로체험센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진로 체험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2021년 공사에 착공, 2023년 개원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 뒷편 교육연구정보원(1만 2123㎡)도 해당 유휴부지로 이설을 추진한

다. 이설을 마친 뒤 정보원 건물은 교육청의 부족한 업무공간과 교육시설로 재활용해 청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다. 시교육청의 계획대로 진로체험센터를 설립하고 교육연구정보원을 이설할 경우 예산만 400억~5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진로체험센터 설립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 및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의회 및 국회의원 등 정치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주길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5 달뜨기 09:41
해질 17:56 달뜨기 21:01

해안기 시설물 주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다.

광주	흐림	5/11	보성	흐림	3/10
목포	흐림	3/8	순천	흐림	6/11
여수	흐림	6/11	영광	흐림	3/9
나주	흐림	4/11	진도	흐림	5/10
완도	흐림	5/10	전주	흐림	4/10
구례	흐림	3/11	군산	흐림	4/10
강진	흐림	4/10	남원	흐림	4/10
해남	흐림	3/10	흑산도	흐림	5/8
장성	흐림	3/1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북~북동	1.0~2.0	북서~북	0.5~1.5
면바다(북)	북~북동	1.5~2.5	북서~북	1.0~2.0
면바다(남)	북~북동	2.0~3.0	북서~북	1.5~2.5
남해서부	북서~북	1.5~3.0	북서~북	1.0~2.0
면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1.5~3.0
면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2.0~3.0

◇생활지수

보통	감기	보통
보통	뇌졸중	보통
좋음	미세먼지	좋음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24 21:57
여수	04:50 17:26	11:23 23:24

◇주간 날씨

29(수)	30(목)	31(금)	2/1(토)	2(일)	3(월)	4(화)
☁	☁	☀	☁	☁	☁	☁
4/9	1/8	1/8	-1/9	0/9	-2/7	-1/9

'전두환 재판' 판사 한국당 입당 총선 출마

전두환씨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아 불출석 재판을 허가했던 장동혁(51·사법연수원 33기)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4·15 총선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전 유성구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다.

장 전 판사는 지난 23일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당 시장을 찾아 입당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 전 판사는 “나라는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 원칙은 합부

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원칙을 바로 세우고 원칙을 되돌려 놓기 위해 정치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 출신인 장 부장판사는 대전 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지난해 2월 광주지법으로 발령돼, 고(故) 조비오 신부와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다가 최근 사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 남구 7개동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

광주시 남구가 지역내 7개 동(洞)을 대상으로 태양광과 태양열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주민 참여 신청서 접수가 오는 5월 1일까지 남구 내 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대상 지역은 대촌동과 효덕동, 송암동, 주월1동, 주월2동, 월산4동, 월산5동 등 7곳이다.

남구 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된 주민(건

물 소유주)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서를 받은 뒤, 올해 진행될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계획서를 제출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에 희망하는 주민들에게는 주택건물이나 상업건물에 태양광 또는 태양열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85% 가량이 지원되며, 설치비의 15%는 자부담 몫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